

시민의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토크빌의 타운미팅과 폴렛의 이웃집단을 중심으로

박의경(전남대)

〈 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강력한 수직적 권력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주민과 이웃이 어떻게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지, 시민의 자치능력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등을 기본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민주주의 체제가 정립되는 시기인 19세기 미국을 살펴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20세기 초 미국을 분석한 메리 폴렛(Mary Follett)의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치능력의 가능성을 통해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참여와 포함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참여, 시민, 민주주의, 타운미팅, 이웃집단

I. 서: 군중 속의 고독 vs. 연대의 가능성

17~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집단에 눌러있던 개인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와 공동체의 주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개인은 국가 조직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과 제도를 조직화 해나갔다. 법과 제도를 탑재하고 조직화된 국가는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개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권력의 모습으로 거대한 리바이어던으로까지 무한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자유주의를 통해 개인의 사상적 정립이 가능해진 반면, 그 자유 확보라는 미명으로 전체주의가 도입되는 역설적 상황이 최근 3~4세기간의 역사에서 전개되어 왔다. 각 개인의 자유가 확보된 사회에서 리바이어던의 등장은 인간의 속성상 시간문제에 불과할 뿐, 이는 필연적 결과였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루소에서는 투표일만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의미로 일부 후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잔류하게 된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권력욕의 극단적 결과는 20세기에 등장한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대변되는 전체주의였다. 모든 인간이 잘 먹고 잘사는 유토피아를 목표로 설정했던 공산주의도 궁극적으로는 전체주의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무정부주의적 낙관주의는 권력 구조가 존재하는 한 세상의 질서에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개인과 자유는 사회와 공동체 앞에서 언제나 제한과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사회가 확대되고, 공동체의 힘이 커질수록, 개인은 소외되어 갔다. 확대되는 군중과 대중 속에서 인간은 갈수록 작아지고, 고독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20세기까지의 권력적 구조와 국가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관계가 역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선택적 구도로 보는 한 그러하다.

그러나 21세기도 1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인간은 정주의 시기를 지나 유목적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징표가 드러난다. 인간이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에 사회계약으로 이행하고, 일단 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조건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는 근대정치사상의 철학적 전제에 대한 균열이 21세기 정보사회를 지나면서 가속되었다고 하겠다. 가상현실이 현실 속으로 강하게 침투하면서, 개인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는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과 사회관계의 유동성 속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배제된 군중 속의 고독한 개인은 연대를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사회를 형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공감을 통한 연대는 21세기 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를 형성해 내는 데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한 새로운 체제의 형성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강력한 수직적 권력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주민과 이웃이 어떻게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지, 시민의 자치능력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등을 기본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민주주의 체제가 정립되는 시기인 19세기 미국을 살펴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20세기 초 미국을 분석한 메리 폴렛(Mary Follett)의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치능력의 가능성을 통해서 참여를 통한 주민과 이웃의 연합이 가능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참여와 포함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다수의 지배와 시민 자치의 가능성

1.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참여하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에 근거한다. 2000여년 이후 종교에 억눌린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되살리자는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에 시동을 건 것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이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은 근대시민혁명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법과 제도의 뿌리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개체성(individuality)에 대한 인정에 그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근대의 최고의 발견은 ‘개체성’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등장한다. 개체성을 통해서 근대의 인간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사회와 분리된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개인(individual)이 가지는 역사성과 사상성이 드러난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동안 인간은 공동체와 신에 압도된 존재로,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과 연동되어 있었고 신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인간은 행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정치 활동은 이러한 전체를 위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다. 중세에는 신의 뜻에 합당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이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인간에게 행복은 너무도 먼 일이었다. 인간의 삶에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근대정치사상이 혁명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각의 변화에 있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있던 인간으로부터 공동체의 사슬을 끊고,

이제 인간은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자유와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원칙이나 목적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칙이나 목적 그 자체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개인’의 등장과 일치한다. 공동체 속의 인간이 살던 시대의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공동체와 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은 질서 지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고대의 자유로움에 대한 예술적 추적이 힘을 발휘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인간의 자유와 개인을 지지하는 발판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종교개혁은 그나마 인간의 개인으로의 비상을 막고 있던 마지막 장막을 걷어버렸다. 신앙의 문제에서 개인과 신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교황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이제 인간의 자유는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킨 것은 바로 인간 정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준 계몽사상이었다. “계몽사상은 그 어느 것보다도 광범위하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를 진작시켰다. 계몽사상은 자기 결정성, 인간 목표의 선택과 실현에 있어서의 지식과 이성의 힘을 고양시켰다.”(Muller 1964: 321; 박의경 2010b: 6에서 재인용)

칸트에 따르면, 계몽이란 편견과 미신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능력이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제 개인은 이성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이성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을 알고, 전수하게 하는 것이다(박의경 2008a: 404).

인간 능력으로서의 이성은 사회적 자유와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하여 작동해 왔다. 계몽사상을 기제로 발현된 인간이성은 17~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역사적 승리를 확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현재에 이른다. “개인이 행위의 주체로서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체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권력의 남용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등장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다.”(박의경 2008a: 405)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체제는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의 신념체계는 인간의 이성능력에 대한 인정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 자율성과 자치의 능력에의 신뢰

역사의 목적은 인본성(humanity)의 완성이다. 인본성으로 충만한 사회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선한 삶이 가능한 선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본성을 통하여 인간은 인간의 본질적 조건을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본성 완성을 위한 선결 조건은 인간의 자유이다. 사실상, 인본성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으로서의 인간의 자유’라는 사고방식의 개념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를 자기실현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린(Thomas Hill Green)은 자기 실현이란 또한 타자의 실현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 공동의 도덕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특히 인본성은 모든 인간의 선한 삶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삶의 양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개념은 그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박의경 2010b: 2).

자유와 평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현실에서 웃을 입고 일상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어야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

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사상과 이상이 현실에 내려와 법과 제도에 실려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유는 인간에게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는 개인의 사적 이익과 전체로서 사회의 선을 조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로 우리는 개인과 사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해야만 한다.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어리석은 질문이다. 자유는 때로 ‘타인을 괴롭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개인 자신의 발전과 사회에서 개인의 발전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모두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 사회의 시민일 때 비로소 그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규제 받지 않은 진정한 자신의 의지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율적일 때 개인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박의경 2010b: 4)

여기서 자율성이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핵심개념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이상과 원칙의 존재는 현실에서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의 실현은 자율적 능력과 자치 능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가능하다. 자율성과 자치능력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자유와 평등은 무너지는 거푸집에 불과하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로서의 자유는 자기실현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실현 능력을 통하여, 개인은 그 존재의 기반이 되는 전체구조 안에서의 자신을 인지한다.”(박의경 2010b: 29)

시민적 삶을 위한 제도적 가치는 의지와 이성 능력에서 현실성을 부여하고, 실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인간이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지라는 인간의 기본 능력에 현실감을 부여하게 되며, 자신의 이성-즉, 자기 완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개개인이 다른 사회 성원의 보다 나은 복지에 공헌하게 되는 사회조직의 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가능하게 된다(Green 1941: 32-33).

자유는 지속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자유는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 중인 개념이다. 자유란 내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거나 활동하고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화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유의 역동성과 지속성이 담겨 있는 개념이 바로 자율성이다.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자치는 가능해진다. 루소가 말하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기 동일성,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서 드러나는 시민의 자치가 바로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유와 평등에서 시작하여 자율성과 자치의 능력으로 천착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 인간의 자율성과 자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파되어간 경로를 잘 보여준다. 벌린의 말처럼, “자유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동할 기회, 즉 행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Berlin, 1970. Introduction, xlii) 것이기에,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인간의 위대한 이념과 사상의 족적이 발견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자율성과 자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배양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자율성과 자치 능력은 길러지는 것이지,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와 평등이고, 우리가 키워내야 할 것이 자율성과 자치능력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율성과 자치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은 매우 역설적이기는 하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자유와 평등

이 주어지는 있으나 자율성과 자치능력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 근거인 자유와 평등마저 사멸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에, 자율성과 자치능력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기본 목표가 시민 양성에 있음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지칭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공동체의 억압으로부터 독립한 개인이 20세기 이후 국가 권력의 확대와 함께 또다시 집단 중심의 전체주의적 흐름 속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섬머힐(Summer Hill)¹⁾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자유와 자율을 몸으로 체득하는 시민학교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Ⅲ. 사람들과 이웃의 조직화-토크빌의 타운미팅과 플렛의 이웃집단

1. 커지는 사회와 작아지는 사람들

근대의 사상혁명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시민혁명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민주주의는 부동의 정치체제로 자리 잡아 왔다. 1990년대 이후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데올로기

1) 1921년 영국 런던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영국의 아동 심리학자이며 급진주의 자유주의 교육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A. S. 니일(Neill)에 의해 “전인 교육”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시험도 숙제도 없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섬머힐은 교과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학생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인간의 자치능력과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라는 근거로부터 시작한 학교로서, 민주적이고 자치생활에 의해서만 제한받는 자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경우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동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의 종언』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곧 그 정치체제의 주인이고, 행위자인 시민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진행에 따라, 사회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민의 주인 됨은 선거를 통해서 제도로 정착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기에, 모든 결정 방식은 다수결에 따르게 된다. 또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은 정치의 주인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전제로부터 과연 타인이 한 인간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된다. 개인의 독립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빌미로 하여 그 근본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도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서 기인하여 형성된 의결 원칙이기는 하나,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각 개인의 모든 의견을 동일한 가중치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개별 의견의 무게가 동일하기에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는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17~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전제권력을 타파하고 형성된 초기의 민주정치는 시민의 힘이 전제권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개별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압도하게 되면서, 대의민주주의는 체제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존 스튜어트 밀(John Start Mill)조차도,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서 다수의 횡포 가능성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다수의 횡포는 프랑스 대혁명 시대 미국의 민

주주의를 분석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도 드러나는 개념으로, 커지는 사회 속에서 작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아메리카에서는 몇가지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수의 권력을 우세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수의 도덕적인 권위는 단 한사람보다는 결합된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지성과 지혜가 있다는, 그리고 입법자들의 수는 그들의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론이 사람들의 지능에도 적용되고 있다 (토크빌 1983: 248).

사회와 정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제도나 기구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복잡해진다. 사회는 다원화되어 가면서, 개인은 일상의 순환적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사회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라는 시민이 일상에 매몰되면서,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얻어가게 된다. 주인에게 장악되어야 할 조직이 역으로 주인을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시민은 이제 사회 속에서 군중과 대중이 되어 간다. 소란한 군중과 소요하는 대중이 존재하는 곳에 민주주의의 주인인 참여하는 시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화되어 가는 사회조직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의 숫자이자 거수기로 변모해간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투표일만 자유로울 뿐이라는 루소의 말이 그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오늘날에는 개인이 군중 속에 묻혀버린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제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거의 진부하기까지 하다. 대중만이 권력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정부도 대중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는 기관이 되고 있다. 공공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사회적, 도덕적 관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목격된다(밀 2005: 124).

앞 절에서 언급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자율성과 자치능력은 19세기와 20세기 대중의 시대를 지나면서 군중과 대중 속에 묻혀버린 인간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율성과 자치능력이 회복되어야 군중과 대중은 시민으로 다시 전환되어,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 자율성과 자치능력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자율성과 자치능력의 배양이 시민 형성의 선결조건이고, 시민의 형성이 민주주의의 질적 가치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다. 자율성과 자치능력의 배양은 인간의 일상을 통해서 학습되고 가꾸어질 필요가 있다. 일상을 영위하는 인간이 자신의 주위에서 손닿는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정치의식이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기초적 민주주의를 체득하게 된다. 머리로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몸으로 습득한 민주주의적 습관은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는 말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토크빌이 1830년대 미국에서 관찰한 뉴잉글랜드 타운미팅(New England town meeting)과 20세기 초 폴렛이 주장한 이웃집단(neighborhood groups)의 가능성이 등장한다.

2. 이웃의 조직화를 통한 사회의 역전 가능성

국가와 사회 규모의 확대로 비인격적 조직에 비해 인간의 존재가 왜소해진 것도 일면적으로 사실이기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강력한 전제권력을 사람들의 힘으로 타파하였듯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 능력은 자율성과 자치능력의 배양을 통해서 개인의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사람들 간의 연합과 유대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해결해나가는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토크빌은 183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서 다수의 횡포나 전체 가능성과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에서 발견한다.

뉴잉글랜드의 주민들은 타운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애착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타운의 업무에 협조함으로써 그 이해관계에 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타운이 자신에게 주는 복리 때문에 애착을 가지게 되며 타운의 복지는 그들이 앞으로 쏟을 노력과 야망의 표적이기도 하다. 그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여한다. 그들은 자기 손이 닿을 수 있는 작은 영역 안에서 정부의 일을 실천한다. 그들은 자유가 실려 있는 그런 형식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그 정신을 흡수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얻으며, 세력균형 감각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의무의 본질과 권리의 범위에 관해서 분명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얻게 된다(토크빌 1983: 79).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은 한마디로 자치활동을 통한 정치훈련의 장이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아고라(agora)의 19세기적 모습이 바로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이었던 것이다. 타운미팅의 현장에서 개인은 참여에 대한 훈련을 쌓아가며,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이면서 정치의식을 가지게 되고, 체제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밀도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횡포와 전체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방법으로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토론의 활성화에 있었다.

결국 거대한 사회 속에 함몰되어가는 개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참여를 통한 토론의 활성화가 그 단초라고 볼 수 있겠다.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규모의 적정화이다. 적정한 규모의 집단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1918

년 미국의 메리 폴렛은 새로운 거대국가 속에 함몰되어가는 개인을 회복 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 계획을 구상하고 제시한다.

1900년대 초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성장가도에서 진보와 발전을 구가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830년부터 미국은 국가 경계의 확대와 함께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토크빌이 극찬했던 타운미팅을 중심축으로 하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당의 발전과 함께, 대의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로 이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폴렛은 당시 사람들의 정치적 삶은 이미 침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노동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세기 새로운 결사 조직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한다.

중구난방의 산만한(crowd) 철학, 산만한 정부, 산만한 애국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 집단 조직이 정치에 도입될 새로운 방법이며, 이는 미래 산업체계의 기초가 되고 국제질서의 근본이 될 것이다. 집단조직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창조적인 힘은 집단에서 나오고, 집단 활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Follett 1998: 3).

폴렛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실패했다. 그 실패의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치능력에 의거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어떤 정치체제도 성공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과 개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관건은 개인을 다시 제자리로 복귀시키는 일이다.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소 민주주의는 개인을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개인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서, 대의민주주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투표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것으로 민주주의의 몰락을 막아내지 못한다. 방법

은 매우 단순하다. 개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무감각한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진정한 개인의 순수한 연합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순수한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진정한 개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있다. 정당은 언제나 개인을 무시했다. 정당은 오직 군중, 다수의 득표만을 원하고 있다.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개혁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양자 모두 원하는 것은 투표자이지 인간이 아니다. ... 개인이 사라지면, 완벽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라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창조적 힘에 의존한다(Follett 1998: 5-6).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폴렛은 개인의 힘을 들고 있다. 폴렛은 또한 정당이나 기존 집단에 의해 단순 거수기가 되어버린 개인의 힘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을 언급한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녀는 분석한다.

따라서 집단 조직은 우리를 단순한 숫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비로소 민주주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사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지배는 숫자에 의존하지만, 민주주의는 사회가 단순한 단위체의 집합이나 유기체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 민주주의의 본질은 창조적인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술은 집단 조직이다. ... 정치가 인간의 고도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정치는 창조적이어야 한다(Follett 1998: 7).

창조적 힘의 근원은 개인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기에, 개인을 창조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 속에서 양육하는 것이 민주주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 폴렛의 분석이다. 당시에 발전하고 있는 정당은 그러한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인간을 숫자에 매몰시켜 버렸기에,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한 강조한다. 폴렛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출발하였으나, 또한 개인에게서, 작은 일상에서의 가능성에 천착하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기왕에 주어진, 있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창조적인 시민정신을 형성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기에, 거대한 사회 속에 함몰되는 듯이 보였던 개인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IV. 참여를 통한 주민과 이웃의 연합: 개인에서 이웃, 국가로의 상승곡선

1. 치자와 피치자의 자기동일성

루소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치자와 피치자의 자기동일성이다. 치자와 피치자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민주주의는 타락과 부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근대사상으로 개인의 가치가 사회에 드러난 이후, 모든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여 왔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여기서 타인과 구별되는 전문가 또는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을 실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를 사회적으로 성공이라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을 좇게 되면서, 지도자와 추종자, 치자와 피치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이 점점 더 명확해져 왔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민주주의로 인해서 인간들 간의 자연스러운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게도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이기에, 개인은 능력을 마

음껏 발휘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드러나는 차별화 현상으로 인한 지도자와 추종자, 치자와 피치자의 분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치자와 피치자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위한 강제(forced to be free)’라는 자유의 역설을 통해, 자신이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을 루소는 자유라고 한다.²⁾ 그러나 자신이 만들지 않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루소의 역설을 아무리 반복 적용하더라도, 강제에 불과하다. 강제당하고 있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것이며, 여기서 개인은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정치체제하에서 통치와 지배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피치자일 뿐이다.

“시민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Rousseau 1978: 222)이라고 역설하는 루소의 말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이며, 그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폴렛은 이러한 시민 형성과정을 일상에서 찾아낸다.

우리의 제안은 이렇다. 사람들이 이웃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 그 삶의 필요, 욕구, 열망을 드러내어 그러한 요구가 정치의 실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웃집단이 정치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Follett 1998: 192).

폴렛은 이러한 이웃 간의 결사를 통해서 거대사회 속에서 소외되어가는 인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한다. 관계망의 형성을 위한 첫걸음은 일단

2) 루소 『사회계약론』의 핵심적 내용으로, 자유와 강제라는 내용상 반의어가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루소는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치자와 피치자의 자기동일성’이라든가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통해 현실에서 법을 지키는 ‘내’가 법을 만드는 자, 정치의 주인인 시민임을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안면익히기이며, 이를 위해 이웃간의 빈번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정치적 논리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 이웃집단의 빈번한 교류와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일체감도 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폴렛의 설명이다. 이웃 조직을 통해서 개인은 조직과 결사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시민이 되어간다. 추종자가 지도자가 되고, 피치자가 치자가 되어가는 일상정치적 현상이 바로 폴렛이 역설하는 이웃집단에서 드러난다.

‘시민을 만들어내라’는 루소의 말이 폴렛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누가 사람들(people)인가? 모든 개인? 다수? 이론적 평균자? 타협적 집단? 우리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정의를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 [계획은] 사람들의 의지가 사람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의 역할은 창조적 시민이라는 우리의 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적 시민의식, 2)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3) 창조적인 시민의식이 바로 그것이다(Follett 1998: 220-222).

시민의식은 일상적 삶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이웃과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폴렛의 분석이다. 이웃집단은 이웃 간에 유대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웃 간의 의식은 정기적인 모임, 진솔한 토론, 활성화된 공동체적 삶을 통한 공동학습과 타인의 경험 공유, 이웃의 삶에 대한 의무감의 양성, 그리고 이웃에서, 도시, 지역, 국가 등으로 확대되는 다른 조직과의 정기적 연계성 등을 통해서 증진된다(Follett 1998: 204-205). 일상적

삶의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의무와 권리, 배려와 기쁨 등의 사회적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사람들 간의 정신적 유대가 강화되는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핵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생동감 있고 역동성 있는 정치가 국가를 새로이 조직하면서 이제 군중과 대중으로 소극성과 순응성에 길들여 있던 사람들이 적극성과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일상의 사적인 힘이 정치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는 셈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다. 일상이 정치이고 나는 곧 정치인이기도 하다. 내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이기도 하면서, 지도자이기도 하기에, 개인의 자아 속에서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2. 군림하는 권력(power-over)에서 함께하는 권력(power-with)으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고,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일상의 삶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군림하는 권력(power-over)이 존재하는 수직적 권력관계와 다른 권력의 짜임으로 구성된다.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인격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에 그 속성은 물론 개체들의 속성이 축적되어 발현되는 것이다.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고, 지도자와 추종자가 상호 순환할 수 있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권력의 유연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권력은 수직적 상호 역학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한, 루소가 말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치자와 피차자의 자기동일성이 시연되는 공동체에서의 권력은 수평적 구조를 보인다. 누군가 무엇인가 위에 군림하여 위계적 상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무엇인가와 함께 가는 병렬적 수평질서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권력(power-with)이다. 여기서 개인들의 관계는 출신과 지위에 관계없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자리매김한다.

토크빌이 분석한 뉴잉글랜드의 타운미팅도, 폴렛의 이웃집단도 모두 이렇게 변화된 권력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토크빌이나 폴렛이 우려했던 바는 평등의 강력한 힘이다. 평등은 인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쓰나미와 같은 위력으로 사회를 휩쓸 것이라는 것이 19세기와 20세기 초입을 지나면서 사회를 관찰한 이들의 분석이었다. 여기서 이들은 평등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타운미팅이나 이웃집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평등의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토크빌은 이미 1830년에 진단하면서, 다수의 전제와 횡포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폴렛이 분석했던 1918년의 미국사회 역시 그 흐름의 결과 거대한 국가조직 속에 개인은 함몰되어 가고, 정치는 정당조직을 통해서 대리인들이 의뢰인들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그야말로 명목만의 대의민주주의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인 시민과 유권자 시민은 두 개의 다른 계층으로 유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와 사회의 역전 가능성을 이들은 개인성의 회복과 시민으로서의 정립, 이러한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재구성 가능성에서 분석한다. 타운미팅과 이웃집단에서의 사회를 구성하는 힘을 여타 정부조직이나 정당조직의 힘과 비교해본 것이 바로, 폴렛의 함께하는 권력과 군림하는 권력이다. 폴렛의 『새로운 국가』는 이 함께하는 권력(power-with)을 개념적 전제로 한 저술이다.

함께하는 권력이란 일견 모순적 개념이다. 함께할 수 있다면 과연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폴렛은 ‘함께하는 권력은 함께 활동적인 힘, 공동으로 발전하는 힘이며, 그러한 힘은 이웃간의 집단이나 결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Forward by Mansbridge. in Follett. 1998. xviii). 군림하는 권력이 지배와 통제로 이해

된다면, 함께하는 권력은 우리가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엮어내는 영향력이자 사회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혁명론』에서 “권력³⁾이란 인간이 행동을 목적으로 함께 연합했을 경우에만 드러나는 것”(Arendt 1965: 174)이라고 설명하면서, 권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권력은 단순히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 권력은 결코 개인의 자산이 될 수 없다; 권력은 집단에 속하는 것이며, 집단이 함께하는 한에서만 유지되는 힘이다(Arendt 1970: 44).

이는 폴렛의 함께하는 권력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폴렛은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지가 미국 민주주의의 관건이라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개인성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개인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다. 폴렛은 개인으로부터 이웃집단, 그리고 이웃집단으로부터 국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군림하는 권력을 넘어서 함께하는 권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1) 개인이 정치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 (2) 실질적으로 사회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문제의 근저에는 모두 개인에 대한 사고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개인주의를 향한 점진적 성장의 역사였으며, 민주주의의 희망은 개인에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식의 발전이라는 말과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의 발전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

3)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모든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그 정당성을 도출해야” 함을 분명히 하며, 참주와 억압에 대한 인민의 권리를 주장했다(2004: 153).

정수준의 사회의식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개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대한 인식과 동일 궤적을 그리며 같이 가고 있다(Follett 1998: 162).

플렛의 함께하는 권력 개념은 이후 정치사상사에서 소수자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대두하는 개념이다.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군림하는 권력-즉, 강제-은 권력이 아니며, 폭력에 불과하다.⁴⁾ 폭력적 방법이 권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는 있으나, 폭력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힘은 바로 함께하는 권력이며, 플렛은 개인의 힘을 극대화시켜 정치의 영역을 개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함께하는 권력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함께하는 권력을 통해서 개인은 치자이자 피치자로, 지도자이자 일반 시민으로, 이웃과의 지속적 모임을 통한 정부조직이나 정당 등 국가적 단체로 자아 정체성을 그대로 보유한 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그대로 존속하는 다수의 지배사회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타운미팅, 이웃집단으로 대별되는 지방자치적 조직과 그 안에서 운용되는 함께하는 권력이라는 역발상에 근거한다.

3. 통합된 자아의 활동 공간-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동체

공동체가 없으면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으면 학습이 없다. 학습이 없으면, 교육이 없다. 교육이 없으면, 시민이 없다. 시민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으면 문화도, 민주주의도, 학교도, 문명도 없다(Barber 1998: 185).

4) 『혁명론』에서 아렌트는 프랑스 혁명의 진행과정을 언급하면서, 자유가 공공역역에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의 사적 영역에 존재하게 되어 자유와 권력이 분리되면, 그 즉각적 결과는 권력이 폭력화 되는 것이었다(2004: 235). 즉, 자유가 권력에서 사라지게 되면, 권력 또한 사라지고 폭력이란 형태만 남게 된다는 말이다.

자유로운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 자유 있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활성화된다.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은 대화와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으로 형성된다. 자유로운 개인과 자유로운 시민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개인에게 자아는 통합되어 있다. 일단 통합된 자아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자아의 활동공간 속에서 자아의 통합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게 된다.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한 개인이 거할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존재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체의 자유는 바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드러난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에서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이어지는 학습의 장에서 체험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자유롭게 영위되고,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학습되어야 하고, 지극히 사소하게 보이는 듯한 개인의 일상이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성주의의 모토도, 21세기 들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생활정치의 문제도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사회성을 일상의 연습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 삶에 있어서는 현실과 관습이 이론보다 중요하다. 단일성이나 애국심, 형제애와 같은 추상적 가치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방법은 지성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속 일상에서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인 것이다.

나는 친구에 대한 나의 의무를 우정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삶을 공유하고 우정이 요구하는 의무를 경험으로 터득하면서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경험을 서로 알게 되면서, 전체적 삶의 구조와 나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나는 사회와 나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Follett 1998: 193).

참여민주주의를 논할 때,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시민의 등장과 형성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시민의 활동공간인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시민의 지속적 재생산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소외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이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민으로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위해서 전문가, 엘리트 정치에서 보통사람, 시민의 정치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시민의 활동공간-즉, 공동체-이다. 시민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자아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박의경 2008b: 78).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는 구성원인 개인의 참여를 핵심기능으로 하면서, 전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동체의 형성이 개인의 자유를,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차별과 배제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 언급되는 것이 타운미팅이나 이웃집단과 같은 사회의 소규모 조직이며,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자발적 결사이다. 인간의 영혼이 있으되 이를 담는 그릇인 육체가 없으면 그 영혼이 세상에 드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정신을 공유한 행위자 시민이 있으나, 그 시민정신을 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와 그 안에서 훈련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치를 보유한 개인과 공동체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통해서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민주주의의 방향전환-영역의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

민주주의는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다.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체제의 주인이라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구체화된 누군가였던 시기의 사고에서 추상적인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생각이 인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인간은 집단 속의 하나에서 개인으로 독립하여 군중과 대중을 거쳐 시민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하나의 개체이자 곧 집단으로 설정되는 사람들의 집단이 시민이다.

사회는 확대되어 가고, 인구는 증가하여 가는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숫자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대시키며 양적 증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시적 성과 이면에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가 그 암울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시민이 아닌 군중과 대중의 변잡스러움과 여론이라는 이름의 소동들이다. 2500여 년 전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려하였던 중우적 민주주의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근대의 사상적, 시민적 혁명기를 겪어낸 개인들의 역량으로 이러한 흐름은 방향을 바꾼다.

물이 차면 넘쳐흐르듯이, 민주주의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외연의 확대에서 내포적 심화로 자연스럽게 그 궤도를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또한 시민들의 힘이 존재한다. 근대 이후 시민으로 등장하여 확대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군중과 대중 속에 함몰되었으나, 개인은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는 원론적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리는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존재해 왔던 방법으로-일상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공동체로-점진적인 영역확대를 통해 시민이 배제된 거대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 자체가 실려 있는 참여와 포함

의 공동체의 등장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웃과의 공감을 통한 연대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한 가치로 대두한 상황이고, 소통의 출발점이 만남과 대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0세기 초엽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간파하고, 이웃집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한 폴렛의 예지력과 19세기 혁명의 시기에 미국의 타운미팅에서 100여 년 후의 세상을 예견했던 토크빌의 혜안은 21세기 현대사회의 대중과 시민들에게 시사한 바가 적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00여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왔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이 빠져 있었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향후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토크빌과 폴렛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의 삶과 정치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대두하는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 책세상, 2005.
- 박의경. 2008a. “페미니즘: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정치학이해의 길잡이-정치사상』, 한국정치학회 편, 법문사.
- _____. 2008b.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루소의 역설”. 『사회과학연구』, 제16집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2010a. 미국민주주의와 관용의 정신. 『한국정치연구』, 제19집 3호.
- _____. 2010b. “자유개념의 정치사상적 흐름에 대한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

- 제14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2011. “대중과 시민의 동학: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사상학회 기획회의 발표논문.
- 아렌트. 홍원표 옮김. 『혁명론』. 한길사, 2004.
- 토크빌. 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1983.
- Arendt, H. 1963. *On Revolution*. New York, NY: Viking Press.
- _____. 1970. *On Violence*. New York,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2. *Aristocracy of Everyon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A Passion for Democr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 1970. *Four Concepts of Libert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yan, Frank M. 2004. *Real Democracy: The New England Town Meeting and How it Work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llett, M. P. 1998. *The New Stat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Green, T. H. 1941.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 London: Longmans.
- Mill, J. S. 1991. *On Liberty and other Essays*. ed. by J. Gray.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 Muller, Herbert. 1964. *Freedom in the Western World*. NY: Harper and Row Publishers.
- Rousseau, J-J. trans. by Masters. 1978. *On the Social Contract*.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 Zimmerman, Joseph. 1999. *The New England Town Meeting*.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Abstract】

**Citizens' Self-Government and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Tocqueville's Town-Meeting and Follett's Neighborhood Groups**

Park, Euikyung(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s how our dwellers and neighbors can become a master of politics in the hierarchical society with a strong and vertical power relationship. It also questions on where we can find the self-governing abilities of citizens and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Analysing American society, Alexis de Tocqueville in 1830's and Mary Follett in 1918 unfolded their diagnosis and prescriptions for the future society. They claim that community of participation and inclus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can be possibly formed through self governing ability based on human freedom and autonomy. Furthermore, they continued to argue that it will be led to the intensified high level of democracy.

Key Words: participation, citizen, democracy, town-meeting, neighborhood group

접 수 일: 2011년 3월 14일

심 사 일: 2011년 4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6일